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한농연중앙연합회, 농특위 운영에 관하여 농림부와 농특위에 공개 질의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시 농특위 불참 할 것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6월 20일 농림부와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공개질의 및 답변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시 농특위를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농림부와 농특위에 보낸 공문에서 "농특위에 참가하게 될 인사들이 공개되면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만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농특위는 참가 위원간 부처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의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제시에는 무소신으로 일관하면서 추가적인 재원투자가 거의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대책을 수립해 놓고, 이것이 마치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인양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한농연은 농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였다.

1. 논의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이 일부 핵심 사항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쌀산업종합대책' 이 농특위를 통해 서둘러 언론에 확정된 것으로 발표되어 농업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귀 위원회에서는 기 발표된 **'쌀산업종합대책'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를 밝혀라.**

2. 농특위는 설립 취지에 의거할 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예산외에 추가적인 재원 투자를 전제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판단된다. 농특위에서 채택된 개별 과제에 대한 집행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특위는 우선적으로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충분한 추가 재원 확보를 전제로 부처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배제한 자율적이고, 소신 있는 의견 도출이 가능한 장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입장과 개선의지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라.

한농연중앙연합회 제8회 전국대회 준비 박차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6월 17일 제1차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8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6월 7일 이벤트사 선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7일에는 전국대회 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차 준비위원회에서는 제8회 전국대회 이벤트 업체 및 기념품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벤트 업체와 기념품이 결정되었다. 또한 전국대회 주제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제8회 전국대회 주제 선정은 오는 7월 2일에 있을 4차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농연중앙연합회 홈페이지(www.kaff.or.kr) 회원제 운영

한농연중앙연합회 홈페이지(www.kaff.or.kr)가 지난 5월부터 회원제로 운영된다.

그 동안 중앙연합회 홈페이지는 농정현안에 대한 각종 정보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자유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익명을 이용한 비방성 글을 비롯하여 한농연의 위상에 저해가 되는 글이 게재되고, 각종 상업성 광고들이 넘쳐나게 되어 홈페이지를 찾은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이런 폐해를 개선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회원제를 실시하고 회원 전용게시판을 개설하여 회원들만의 공간을 운영키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게 될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도 회원우선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회원가입은 한농연 홈페이지(www.kaff.or.kr) 메인 페이지 왼쪽 중간부분 '회원 로그인' 란을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하면 준회원 자격이 생기며, 소속 연합회에 실명인 확인(회원 가입란에 소속 연합회를 기재하시면 보다 빠르게 정회원으로 인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을 마친 후 정회원이 된다.

농업경영인 법률상담 사이트 개설

한농연중앙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농업경영인을 비롯한 홈페이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이후 법률상담소)를 실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소는 김태욱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김태욱 변호사는 93년 후계자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하던 중 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올해 초, 새벽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김 변호사는 사법고시 합격으로 또 다른 농민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었노라고 밝히고, 한농연중앙연합회에 농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하겠다고 자청했다.

법률상담소는 한농연 홈페이지를 찾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실은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어 상담내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비공개 상담실을 이용할 때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을 모아놓은 자료실도 갖추어져 있다.

무료 법률상담소가 개설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영농활동 중 생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건의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는 지난 6월 10일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지 표기방법을 포괄적 개념인 '국산' 명시에서 '생산 시 · 군' 표기로 세분화 할 것을 요구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건의문을 농림부에 제출하였다.

경기도연합회는 "국산 우수농산물은 자체적으로 생산 시 · 군을 표시하고 있으나 저급한 농산물은 국산으로만 표시, 우수 농산물 전체에 피해를 주거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며, 현재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호의 '국산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한 시 · 군명을 표시한다' 의 내용을 '국산을 없애고 반드시 생산 시 · 군을 표시한다' 로 개정토록 촉구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 홈페이지 개설

한농연제주도연합회(회장 김창범)는 지난 5월 10일부터 도연합회 홈페이지를 개설 · 운영하고 있다. 1년여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개통하게 된 홈페이지는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소개, 연혁, 역대 임원 · 회원 현황, 조직도,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시군연합회 소식란으로 꾸며졌고, 자료실은 정책 자료실, 사진 자료실, 농업관련 자료실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

소식란에는 농업경영자금 이율인하 내용과 신청방법 등 농업관련 최근소식과 농가부채 토론회 내용 등을 자세히 올리고 있으며, 협동조합 개혁, 농가부채 특별법, 농업재해대책 등에 대한 자료도 소개되어 있어 제주도내 농업경영인들과 농업인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이번 홈페이지 개통을 계기로 "정보화농업은 농업경영인이 선도하여 나아간다"라는 기치 아래 농업경영인 회원에 대하여 각종 컴퓨터 활용교육을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는 읍 · 면 · 동단위 회에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업정보화에 총력을 기울려 나갈 계획이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WTO 국민연대 로마 FAO NGO/CSO(유엔 식량농업 비정부/시민사회기구) 포럼 참가

WTO 국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FAO NGO/CSO 포럼」 참석하였다.

김충실 WTO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대표단은 "FAO 다자간 협의" 와 "식량주권에 대한 토론(Assembly for Food Sovereignty)" , "워크샵" 등에 참석하였으며, 선언문과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 관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통해 한국 NGO 단체들의 입장을 전세계에 알렸다.

WTO국민연대는 선언문에서 "국제곡물시장에서 소수의 곡물 수출국과 다국적 곡물회사의 독점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WTO로부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고 "한국은 급격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내농업 생산의 축소,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존 심화,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기타 비위생적인 식품에 의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왜곡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 밝혔다.

또한 WTO 국민연대는 "로마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식량안전을 위한 행동계획」에는 '각국은

법률, 전략의 수립,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발의 우선 순위 등을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해야 한다' 고 기술되어있으나, 각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제한하고 있는 WTO 제 규정들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세계 시민단체의 행동을 촉구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주장 · 요청하였다.

▶ FAO에 요청한 사항

○ 각국의 '식량주권' 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의 식량안보 정책' 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FAO에 대해 WTO 농업협상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국가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 요소들을 고려한 '식량불안정 지표' 를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 WTO에 요청한 사항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회원국 농업의 다양성이 WTO 농업협상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며, 협정문에는 각국의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적정수준의 국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입국의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는 식량수출국의 수입 제한조치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 한국정부에 요청한 사항

○ 한국정부는 주곡의 적정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수렴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반드시 식량의 '국내 자급률 목표' 를 설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농업인들의 소득•안정화와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전면적인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직 체계 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농경연 산하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으로 서종혁 선임연구위원을, 농경연 부원장으로 정명채 박사를 인사 발령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수요의 탄력적 대처를 위해 기존의 2부3센터3실의 연구부서를 4센터1실로 개편했다.

농경연 부원장으로 임명된 정명채 박사는 지난 5월 16일 한농연이 주최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바 있다. 한농연